

## 불교박람회 올해도 盛況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12일 개막  
첫날 정·관계, 대사들까지 1만명 운집

국내 최대 불교전시행사로 주목  
받은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학여울역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회  
의 부의장 명선스님과 총무원장 자  
승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20  
여명,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서  
울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이기흥  
중앙산도회장, 김중 문화체육관광  
부 제2차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  
근복 사단법인 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  
장 등 불교지도자, 정관계, 문화계  
인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  
했다. 특히 네덜란드, 네팔, 스리랑  
카 등 주한 외국대사들이 대거 동참  
하는 등 국제불교 행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날 박람회 대회장인 조계종 총  
무원장 자승스님은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문화에 담긴 산업적 진면목을  
조명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특히 올해는 국내뿐 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리  
랑카, 부탄 등 이웃나라가 함께 동  
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 활성화와 정  
보교류의 장을 만들어 내고, 관련  
산업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

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은 식전행사로 명원  
문화재단의 어린이 다례시연, 종립  
어산작법학교 공연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어 주요 내  
빈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어산작법학교 오픈 공  
연, 개회사, 축사, 전통문화우수상품  
전·최우수콘텐츠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람회 공동운영위원장  
영배스님(불교신문사 사장)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  
는 장으로서 박람회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모  
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운영위  
원장 지홍스님(불광출판사 대표)도  
“앞으로 한국문화의 위상을 세계  
에서 알리고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조계종과 서울시가 주최한 가운  
데 불교신문사와 불광출판사가 주  
관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살  
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을 주제  
로 15일까지 4일 동안 230여개 업체  
가 400개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물  
품을 선보인다. 개막 첫 날 전국 각  
지에서 관람객 1만 여명이 다녀가는  
등 사부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  
며 불교계 최대 박람회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14~15면

허정철 기자 hje@bulgyo.com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을 주제로 지난 12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막을 올린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원로의회 부의장 명선스님(앞 왼쪽)과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내빈 스님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발표 연등회 회향은 광화문광장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  
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봉축표어와 함께 주요행사 일정  
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봉축 축  
제 준비에 들어갔다. 봉축위원회  
는 5월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로 ‘평화로운 마음 향기  
로운 세상’을 선정했다고 지난 11  
일 밝혔다.

봉축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로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고 화해와 자

비의 향기가 넘치는 세상을 구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  
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올해  
봉축행사는 4월29일 서울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  
와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연등회 등으로 진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  
회는 어울림마당,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

로 진행된다. 수 만 개의 전통등  
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  
은 5월16일 오후6시부터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는 연등회 회향한마당 자  
리를 종각사거리에서 광화문 광  
장으로 옮겨 전 세계인이 함께하  
는 축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전  
통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는 문화  
마당은 5월17일 정오부터 오후7  
시까지 조계사 앞길에서 진행된  
다. 같은 날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가, 오후7시  
부터 화려한 춤과 신나는 율동 흥  
겨운 노래 속에서 연등놀이도 펼  
쳐진다. 갖가지 종류의 등을 만날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도 5월15일  
부터 26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의  
각 지역과 사찰에서도 다채로운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펼쳐진다.  
자세한 정보는 연등축제 홈페이지  
(http://www.lif.or.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홍다영 기자

### 성지순례의 名家

## 더존투어

- 중남미, 아프리카, 발칸, 미주, 유럽, 러시아 전문
  - 세도나 명상투어 전문
  - 중국, 인도, 동남아, 부탄, 티벳, 스리랑카 직영
- 02.738.7661

일반대학 불교 박사논문 7면

### 선학원 정상화

#### 추진위 ‘출범’

“대화와 협의 통해  
단일승가 구현 진력”

종단 법인 등록을 거부하고 독자  
적인 길을 걷고 있는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게 될 범종단 차  
원의 위원회가 출범했다. 선학원 정

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범  
등스님)는 지난 1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갖고 선학원  
과의 대화를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섰  
다. 출범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장 밀  
운스님과 원로의원 율탄·해성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교구  
본사 주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제200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제정  
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구로, 위원장 범등스님을 비  
롯해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선원  
수좌, 전국비구니회, 선학원 관련  
문도 스님 등이 참여하는 범종단  
차원의 위원회다. 출범식에 참석한  
스님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선학  
원과 다시 한 번 문제 해결에 나서  
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추진위원회  
증명을 받은 진제 종정예하고 고문  
으로 참여하고 있는 원로의원 율탄  
스님도 조계종 단일 승가 및 화합  
승가 구현을 강조하며 종도들에게  
추진위원회 활동에 뜻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의원 밀운  
스님이 대독한 교시에서 “종단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학원과  
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  
해 조계종 단일승가 구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원  
로의원 율탄스님은 “조계종과 선  
학원이 둘이 아닌 일체임을 알고  
설득하고 이해시켜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선학원이 청정 비구승의 수행공동  
체를 회복해 대한불교조계종 승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며  
“종단을 대표해 선학원과의 대화와

협의를 나서는 추진위원회에 집행  
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장 범등스  
님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선학원 문  
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펼칠  
예정이며, 지역별 간담회, 선학원 역  
사 정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다. 또 4월2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  
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남해 염불암

## 月庵(월암)스님과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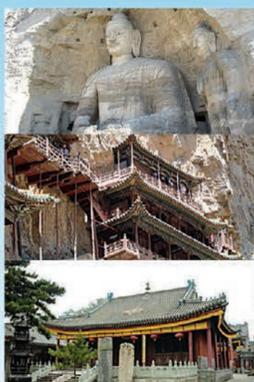
# 중국 선종사찰순례



2015년 승려연수교육으로 월암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4월 22일(수) ~ 28일(화)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중국 4대 석굴로 유명한 대동(大同)의 운강석굴과 유서깊은 화엄사,  
그리고 절벽위의 경이로운 현공사와 북악인 항산(恒山), 문수성지로 유명한  
오대산의 불교유적들과 ‘왕오천축국전’의 저자인 신라승 혜초의 열반지를  
순례합니다.

또한 석가장 인근의 조주스님 행화도량인 백림선사와 임제스님의 임제사,  
수대고찰 용흥사(대불사) 등지를 참배하며,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별장인  
승덕의 피서산장과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로 유명한 열하(熱河)를 구경  
하고,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을 본뜬 보타승승지묘와 세계 최대 입상목조  
불상이 모셔진 보명사 등지를 순례합니다.



- 교육일정 : 4월 22일(수) ~ 28일(화) (음 3월 4일 ~ 10일) (6박 7일)
- 동 참 금 : 1,520,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038-049406-01-023(붓다투어)
- 접수마감 : 2015년 4월 6일(월) 까지
- 장 소 : 김포-북경-대동-항산-오대산-석가장-운거사-승덕-북경-인천
- 강의내용 : 강의 1. 중국 선종사찰의 역사  
강의 2. 선의 황금시대 - 간추린 선어록  
강의 3. 중국선종사찰에 남겨진 한국의 선사들